

□ 국어 오용 실태 □

☆ 표기상의 혼란

○휴게실 : 휴계실

김치찌개 : 김치찌계

위의 예들은 간판 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란 예들이라 할 수 있는데, 前者는 漢字의 本音을 잘 모른다는 사실과 ‘계’가 때로 ‘계’로 잘 발음된다는 사실에 그 혼란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時計’의 ‘計’는 本音이 ‘계’이므로 그렇게 적고 ‘休憩室’의 ‘憩’는 ‘계’로 익어졌으므로 ‘계’로 적는다. 이같은 것으로 ‘揭’, ‘揭’가 있다.

後者は ‘계’와 ‘개’에서 나타나는 발음상의 혼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개’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名詞를 만드는 接尾辭로 중세국어 단계에도 쓰였던 말로(“두늘개 썬시 三百三十六萬里요”(月釋, I. 14.)),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는 語辭다. (‘노리개’, ‘덮개’ 등 다만, ‘마개’는 ‘막+애’로 된 것임)

그러므로 위의 표기는 동사어간 ‘찌-’에 접미사 ‘개’가 연결된 ‘김치찌개’가 맞는다.

☆ 主語와 述語의 不一致

××공사에서 펴낸 어떤 책자의 머리말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과학기술용어는 물론이고 최신전기 기술도입에 따라 급증하는 새로운 기술용어가 V 우리 고유의 언어나 공용어로 미처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래어 그대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의 인용문에서 主語는 ‘기술용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술용어’는 無情物로서 行爲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述語는 被動的의 表現인 ‘정비되지’, ‘사용되고’로 되어야 자연스러운 텐데 ‘정비하지’, ‘사용하고’로 되어 主·述간에 呼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V’ 자리에 ‘우리가’ 정도의 主語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 主·述간의 호응은 一致되는 것으로 되지만 그렇게 하자면 ‘이미... 새로운 기술용어’라는 말용 目的語로 바꾸기 위해 ‘가’ 대신 ‘를’을 사용해야 文法的인 文章이 된다고 하겠다.